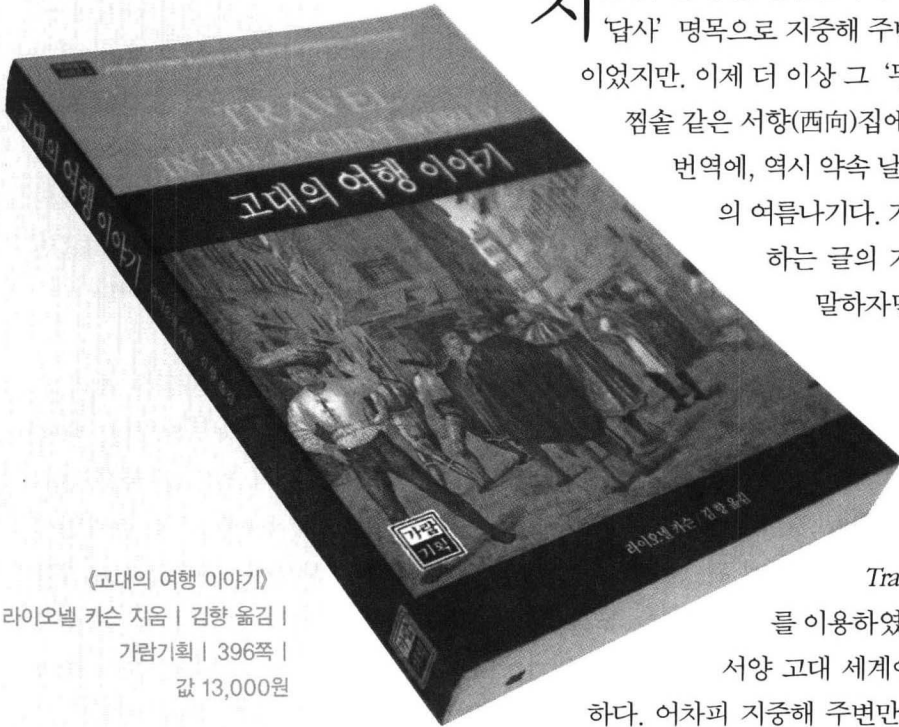


《고대의 여행 이야기》

‘길 떠남의 오랜 역사’



《고대의 여행 이야기》
라이오넬 카슨 지음 | 김향 옮김 |
가람기획 | 396쪽 |
값 13,000원



글_강대진 서양고전학자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진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살림살이에 비해 과하게 해외여행을 해왔다. 물론 ‘답사’ 명목으로 지중해 주변, 내 전공과 관련된 지역을 둘러본 것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무리’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올 여름은 짐승 같은 서향(西向)집에 들어앉았다. 진작에 넘겨주기로 했던 번역에, 역시 약속 날짜 지난 단행본 원고에, 알량한 글쟁이의 여름나기다. 기다리는 햇바람을 앞질러, 다달이 써야 하는 글의 기한이 닥쳐온다. 여행 책을 뽑아든다. 말하자면, 가지 못한 여행 대신이다.

책이야 물론 좋다. 재미있고 유익하다. 여러 가지를 쏙쏙하게 배울 수 있다. 저자는 유머가 있고, 역자는 언어감각이 좋다. 역지로 몇 가지 트집을 잡는다. (원문 대조에는, Lionel Casson,

Travel in the Ancient World, Toronto 1974

를 이용하였다.)

서양 고대 세계에 대한 책들의 구성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어차피 지중해 주변만이 문제이니 근동에서 시작해서 회람, 로마를 거쳐 비잔티움에서 끝나면 된다. 이 책도 같은 유형을 좇아간다. 먼저 근동. “나일 하구에서 해안으로 이어진 티로스, 시돈, 베이루트 그리고 다시 그 앞으로 이어지는 길”을 소개한다. 근래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불바다가 된 이 길을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이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던 ‘바리새 인이 시는 땅을 지나는 길’”(21쪽)이라고 해 놓았다. 하지만 바리새(Pharisee) 인들은 예수 시대 전후에 활동했던, 유대교의 한 종파이다. 지금 여기 문제되는 것은 근원을 알 수 없는 ‘해양민족’의 후예들로서, 우리말 구약성서는 이들을 ‘블레셋’(Philistines, p. 26)이라 칭하고 있다. 다윗과 겨뤘던 골리앗이 속한 민족이다. 뒤에서도 한 번은 제대로 “필리스티아 인”(47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구약성서의 바리새 인”(50쪽)으로 돌아가 버렸다.

고유명사를 잘못 적은 것 하나 더. 축제일에 이집트 인 군중이 “시리우스”(32쪽)로 여행했다는 것은 ‘부시리스’(Busiris, p. 35)의 잘못이다. 나일 강의 범람이 시리우스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아는 독자께서는, 그 별의 이름을 딴 지명이 있었나보다 하고 생각할 만한 대목이다. 부시리스는 ‘오시리스의 무덤’이란 뜻으로, 이 이름을 가진 곳이 여럿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나일 삼각주 중 가운데 것에 있는, 현재의 아부시르(Abusir)였다고 한다.

말이 가축으로 도입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탈 용기를 갖게 된 것은 한참

위의 일이다. 《일리아스》에서도 말은 전차를 끄는 데 이용될 뿐, 사람이 직접 등에 타는 것은 말을 훔쳐 급하게 달아나는 예외적 상황에서나 나온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오뒷세우스가 레소스의 명마를 훔쳐 달아날 때이다. 그가 “말에 올라타고 채찍을 휘두르자, 두 마리의 말은 쏜살처럼 달려 느러터진 배 쪽으로 질주했다”(50쪽). 한데 ‘배’를 꾸며주는 말이 이상하다. 옛 서사시에서 배는 보통 ‘빠른’(thoos)이란 수식어를 받기 때문이다. 그 못지않게 배에 잘 붙는 것이 ‘우묵한’(hollow, p. 52)이란 꾸밈말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느러터진”으로 잘못 옮겨졌다.

고대의 여행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이기 위해 루키아노스의 《사자(死者)의 대화》가 인용된다. 거기 보면 “정령들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73쪽). 약간 혼란을 주는 구절인데, ‘저승의 혼령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로 내려왔는지를’(in the underworld... a group of spirits discuss how people got down there, p. 73)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이해하기 쉽겠다. “땅에 내려온”이란 말이 ‘하늘에서 땅으로 온’이란 뜻으로 들릴 수 있겠기에 하는 말이다.

매년 3월 아테나이에서 있었던 대 디오니시아 축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축제의 정점이 “비극작가와 희극작가 간에 벌어지는 일련의 경쟁이었다”(82쪽)고 한 것은 원문(a series of competitions between writers of tragedy and comedy, p. 80)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독자에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다. 경쟁은 비극작가끼리, 희극작가끼리 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재미있는 점 중 하나가, 역사가로 주로 알려진 헤로도토스를 여행작가로 부각시키는 것인데, 그의 한 특징, 그러니까 그가 미술품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에 사소한 오식이 들어가 전체 문맥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헤로도토스는... 장대한 기념물, 어느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 이집트의 결정적인 카트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106쪽). 여기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결정적인 카트”는 ‘주요 인기상품’ 정도가 될 말(chief drawing card, p. 100)이다.

로마시대에는 나폴리 근처에 빌라를 마련하는 것이 유력 인사들 사이에 큰 유행이었는데, 그것은 공화정 시기나 제국 시대나 마찬가지였다. 이를 두고, “로마 제국의 성립과 동시에, 황제들과 그 친척들이 공화정 시기의 유력자들로 행세하게 되었다”(153쪽)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국 시대 사람이 옛 공화정 시대 사람 행세를 한다? 이는 새로운 유력자들이 구 지배층을 ‘대신해서’ 이 별장 지대를 차지했다는 뜻이다(the emperors and their

relatives replaced the potentates of the Republic, p. 140).

사소한 탈자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게 된 문장 하나. 어느 시대나 휴양지라는 곳이 소란하고 ‘문란’해지기 쉬운 데, 바이아이(Baiae)라는 곳도 그런 쪽으로 유명해서, “키케로와 동시대인이었던 지식인 바는 비난한 바 있다”(158쪽)고 한다. “지식인 바”는 누구일까? 바로 ‘바로’(Varro, p. 143)라는 이로서, 《농경에 대하여》(De Re Rustica), 《라틴어에 대하여》(De Lingua Latina)란 책을 썼던 사람이다.

로마 길을 흐르는 강 ‘티베리스’(Tiberis)를 영어식으로 ‘티베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그러저럭 용인이 되겠지만, “티베리우스 강”(169쪽)이라고 한 것은 좀 심했다. 이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이름이기 때문이다.

후대인들이 발명해낸 ‘유적지’의 예로서, 튀케나이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르고스가 딸 이오의 땅을 보면서 그 아래 앉아 있던 나무”(268쪽)라 한다.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다 소로 변하여, 눈이 백 개 있는 괴물 아르고스에게 감시를 받았던 이오가 사실은 아르고스의 딸이었다는 것은 나로서도 금시초문이다. 원문을 보니 “딸”이란 말이 없는데 어찌다 들어갔는지 모르겠다(the olive tree... under which Argos sat as he guarded Io, p. 233).

옛 보물 중에 로도스 섬의 신전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갑옷은 “이집트 파라오 모세”(279쪽)의 것이 아니라 ‘아마시스’(Amasis, p. 279)의 것이다. 파라오들의 이름이 ‘-모세스’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모세가 할 일은 유대 민족을 본향으로 이끄는 것이지 이집트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들이 지금은 거친 돌계단 모양으로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매끄럽게 흙칠로 마무리되어”(300쪽)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주장이다. 보통은 “좋은 돌로 매끈하게 마무리된”(wrapped in the smooth skin of their revetment, p. 259) 것을 아랍인들이 뜯어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소한 문제들이다. 이런 것을 문제삼다니, 더 위 탓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서 배운 것 하나.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가 젊은이에게 길을 비키라고 했다가 살해당한 데는, 당시의 도로포장 방식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길을 모두 포장하기 힘들니까, 바퀴 달은 부분만을 따라서 흙이 패인 돌을 까는 것이다. 왕은 바퀴가 거기 끼어 마차 방향을 바꿀 수 없었고, 젊은이에게 비키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덥다, 앞뒤 가리지 않고 화부터 낼 만큼... 현관 앞에 수세미 덩굴이라도 심어둘 걸 그랬다. ☹